2016년 제4회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 문제

(아란시아 *v.* 로마리오)

1. 로마리오는 면적 약 800만 ㎢, 인구는 약 3억 명에 이르는 국가로 유라시아 대륙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남쪽과 동쪽 해안을 통해 바다로 진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로마리오해(海)'라 불리는 로마리오의 남쪽 바다 인근에는 아란시아를 포함하여 로마리오와 인접하거나 마주보고 있는 4개의 국가들이 있고, 따라서 로마리오해는 반폐쇄해로 간주되고 있다. 로마리오해를 사이에 두고 로마리오와 마주보고 있는 아란시아는 약 5,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국가이며, 로마리오의 남쪽 해안으로부터 아란시아의 북쪽 해안까지의 거리는 약 550해리에 달한다.
2. 1996년 8월 로마리오, 아란시아를 포함하여 로마리오해의 5개 연안국들은 모두 1994년 11월 발효한 유엔해양법협약에 가입하였다. 로마리오는 유엔해양법협약에 가입할 때 유엔해양법협약 제287조 제1항에 따라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를 선택하는 서면선언을 하였고, 아란시아 또한 1998년 5월 로마리오의 서면선언과 동일한 내용의 서면선언을 하였다.
3. 로마리오해에는 약 100여개에 이르는 암초, 환초, 간조노출지 등의 지형들이 있는데,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는 없으며, 이 지형들 중 가장 큰 지형인 '칼라고니 리프'(Kalagony Reef)의 크기는 약 10,000 ㎡에 불과하다. (참고로 대한민국 마라도의 면적은 약 300,000 ㎡이며, 현재 로마리오해의 5개 연안국들 중 하나인 베리카가 자국의 해병대를 동원하여 칼라고니 리프를 점거 중이지만 로마리오와 아란시아도 칼라고니 리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약 100여개에 이르는 지형들에 대해서 로마리오, 아란시아를 포함하여 5개 연안국들 사이에 영유권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아직까지 확실하게 분쟁이 해결된 지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통적으로 다른 4개 연안국들에 비해 해양대국을 자처했던 로마리오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로마리오 정부기관인 국립로마리오지리원을 통해 지도를 발간할 때마다 지도 위에 로마리오의 남쪽 해안으로부터 약 470해리 떨어진 위치에 5개의 점들을 찍고 이들을 연결하여 'W' 모양의 가상의 선(이하 "W-Shaped Line")을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로마리오는 로마리오 남쪽 해안과 W-Shaped Line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지형들에 대하여 '역사적인 권리'(historic rights)에 기초한 주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로마리오 남쪽 해안과 W-Shaped Line 사이의 해양영역에 대해서도 역사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1990년 이후 로마리오, 아란시아를 포함하여 5개 연안국들은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점거하고 있는 지형들 위에 인공적인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해당 지형들을 유인도화 하는 작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4. 아란시아는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규정들에 따라 2004년 5월 군도기선을 설정하고 군도기선으로부터 200해리에 이르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였다.
5. 2013년 로마리오는 로마리오 남쪽 해안과 W-Shaped Line 사이에 로마리오 자신이 실제로 점거하고 있는 10개 지형들 위에 로마리오군 공병대를 동원하여 공군 활주로 또는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로마리오는 로마리오 자신이 점거하고 있는 10개 지형들 중 가장 큰 지형인 '아란차 숄'(Arancha Shoal)이라 불리는 지형으로부터 반경 20해리 이내에서 (아란차 숄로부터 반경 20해리 이내의 해양영역은 모두 로마리오 남쪽 해안과 W-Shaped Line 사이에 포함됨) 아란시아 어선들의 어로활동을 금지시켰는데, 이 금지 조치는 로마리오의 법률로 만들어져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아란차 숄은 로마리오 남쪽 해안과 W-Shaped Line 사이에 존재하며 아란시아의 군도기선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125해리 위치에 존재하고 있다. 아란차 숄에는 마실 수 있는 물이 존재하지 않지만, 아란차 숄 인근에 상업성이 있는 어장들이 여럿 존재하는 관계로 로마리오가 2013년 아란차 숄 위에 공군 활주로를 건설하기 전에는 국적에 관계없이 많은 어선들이 아란차 숄에 잠시 머무르곤 하였다.
6. 로마리오는 아란차 숄 위에 공군 활주로를 건설하기 전에 1989년 제정된 후 개정 없이 시행 중인 로마리오의 환경 관련 법률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공군 활주로가 완성되어 운영 중인 2016년 6월 30일 현재 아란차 숄 인근의 해양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연구결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7. 아란차 숄은 아란시아 헌법상 아란시아의 영토로 간주되고 있는데, 이에 아란시아 국적의 어선인 '골든브릿지'(Golden Bridge)호는 로마리오의 법률에 의한 금지 조치에 관계없이 상업성이 가장 높은 곳인 아란차 숄로부터 남동쪽으로 14해리 떨어진 어장에서 어로활동을 계속하였다. 2014년 10월 16일 오후 5시경 어로활동을 하고 있는 골든브릿지호를 발견한 로마리오 해안경비대 경비정은 골든브릿지호에게 아란차 숄로부터 반경 20해리 이내에서 아란시아 어선들의 어로활동은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즉시 어로활동을 중단할 것을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요구하였다. 골든브릿지호가 어로활동을 중단하지 않자 로마리오 해안경비대 경비정은 나포를 시도하였고, 그때서야 골든브릿지호는 아란시아 북쪽 해안을 향하여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로마리오 해안경비대 경비정과 골든브릿지호의 최고속력이 거의 같았기 때문에 로마리오 해안경비대 경비정이 골든브릿지호를 나포하기 어려웠고, 따라서 로마리오 해안경비대 경비정과 골든브릿지호는 아란시아의 군도기선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35해리 근처에서 열다섯 시간 이상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서로의 입장을 반박하며 대치하고 있었다. 골든브릿지호와 로마리오 해안경비대 경비정 간의 대치가 길어지자 로마리오 해안경비대는 2014년 10월 18일 오전 7시경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골든브릿지호에 진입하여 골든브릿지호의 선장 및 10명에 이르는 모든 선원들을 체포하고 골든브릿지호를 나포하는데 성공하였다. 나포 후 로마리오 해안경비대의 조사 결과 선원 1명을 제외한 선장 및 9명의 선원들은 아란시아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8. 아란시아와 로마리오는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 여러 차례 교섭을 하였으나 분쟁을 해

결하는데 실패하였고, 이에 2015년 3월 10일 아란시아는 로마리오를 상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며 아래의 내용들을 주장하였다.

(1) 로마리오의 남쪽 해안과 W-Shaped Line에 의하여 둘러싸인 해양영역에 대하여 로마리오가 주장하고 있는 역사적인 권리는, 유엔해양법협약 하에서 로마리오의 해양영역에 대한 권원을 넘는 한, 유엔해양법협약과 양립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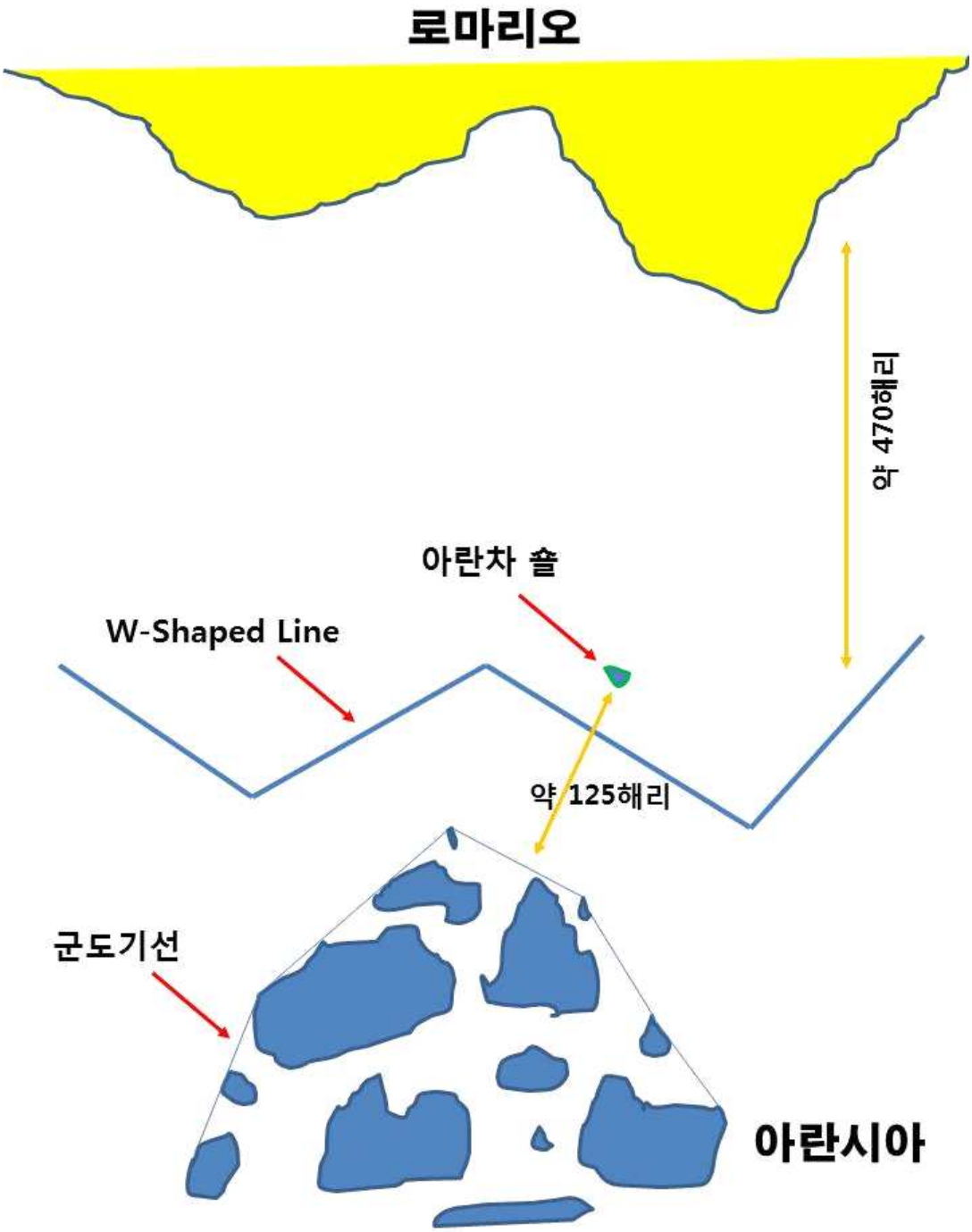
(2) 2013년 로마리오가 공군 활주로를 건설하기 전에 아란차 숄이 간조노출지였다면 로마리오는 아란시아의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만약 2013년 이전에도 아란차 숄이 만조 시에 수면 위에 있는 지형이었다면 아란차 숄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가지지 않는다.

(3) 로마리오는 아란차 숄에 공군 활주로를 건설하면서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유엔해양법협약 하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4) 로마리오의 골든브릿지호 나포는 유엔해양법협약 하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따라서 로마리오는 아란시아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국제책임을 져야 한다.

※ 2016년 6월 30일 현재 국제사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아란시아와 로마리오 간의 소송에 대해서는 선결적 항변에 관한 어떤 주장도 없었으며, 따라서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인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아란시아에 의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주장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문제에 대한 질의는 본 모의재판대회의 공정성을 위하여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문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아래와 같이 대략의 그림을 첨부합니다.



※ 대략의 그림은 오로지 참고용이며, 그림에 대한 의문 발생 시 문제에 서술된 내용이 우선함을 알려드립니다.